

사회



낮시간대에도 영하에 머무는 강추위가 지속되면서 감기나 신종플루 의심 증세를 보이는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13일 광주 모병원 내과는 감기 환자와 신종플루를 우려해 자녀를 데리고 방문한 부모들로 인해 북새통을 이뤘다.

신종플루 공포 당국은 '뒷집'

병원마다 환자 북새통... 광주서 50대 사망

전남도 대책반도 없어

강추위가 계속되면서 광주·전남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신종플루 환자가 잇따라 속지는 등 신종플루 공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그러나 보건당국이 신종플루를 계절성 독감 수준으로 조정, 사실상 관리에서 손을 떼면서 지방자치단체도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보건당국은 현재의 신종플루 환자 수가 통계상으로 지난해 11월 신종플루 대유행 때의 10분의 1 수준으로 보고 있으나 일선 병·의원들은 실제로 이달 들어 신종플루 의심환자는 매일 최소 20명 이상 몰려들고 있으며, 주 단위로 환자 수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의료기관에 신종플루라는 용어 대신 '계절 인플루엔자'로 기록할 것을 요구하는 등 단순히 국민에게 '큰 위험은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식의 메시지만 내보내고 있다.

특히 동네 전체 약국에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공급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랜 대다수 약국에서 타미플루를 구할 수 없어 환자가 보건

소를 찾아야 할 뿐만 아니라 10만~16만원에 달하는 신종플루 확진 검사 비용도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등 정부가 무사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각 지자체는 신종플루에 대한 신고·보고·격리 치료 의무가 없으며, 치료제는 급성 열성 호흡기 질환자에 대한 진단 검사를 가급적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확진 환자들도 타미플루를 구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가정에서의 주의도 소홀한 경향이어서 유행의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다.

이 같이 신종플루에 대한 경계가 느슨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전남대병원에 치료중이던 50대 남성이 숨졌다. 이 남성은 평소 간경화로 치료를 받아온 고위험군 환자였다.

13일 광주시에서 따르면 전남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 중이던 이모(55)씨가 이날 새벽 2시30분께 사망했다. 이씨는 15일 전부터 감기증상을 보여 지난 10일 전남대병원에 입원한 뒤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았었다.

이와 함께 최근 순천에서도 신종플루로 치료를 받던 40대 남성이 의식 불명에 빠졌으며, 장수군에서는 여중생이 사망하기도 했다.

광주시는 지난 11일부터 신종플루 대책상황반을 가동하고 있으나 전남

도는 아직 대책반을 구성하지 않았다.

광주 A의원 원장은 "신종플루가 사실 계절독감보다 치사율이 낮아 그렇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보건당국이 경계를 소홀히 할 경우 전파 속도가 빨라 유행을 몰고올 수 있다"면서 "신종플루 환자 증가는 개인의 건강은 물론 자칫 국가적인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타미플루 건보급여

한시적 확대기로

보건복지부는 인플루엔자 유행을 조기에 진정시키기 위해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고위험군 환자가 아니라도 항바이러스제 투약에 대한 요양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먼저 14일부터 의사가 인플루엔자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항바이러스제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고위험군 환자가 아니라도 항바이러스제 투약에 대한 요양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는 신종플루 유행과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등 바이러스 활동도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내달 초 설 연휴와 초중고 개학을 앞두고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연환스

전남대 등록금 동결

지역 사립대는 3~5% 인상할 듯

전남대학교가 광주·전남지역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올해 등록금 동결을 발표했다. 전남대가 2009년부터 3년 연속 등록금이 동결됐다.

전남대가 정부의 강력한 국립대 등록금 동결 요청 등에 따라 올해도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기로 했으나 지역 사립대는 사실상 동결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대를 비롯한 지역 대부분의 사립대학들은 이미 지난 2년 동안 등록금을 동결, 재정 압박이 심해 올해는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사립대에 등록금 동결을 요청하면서도 불가피할 경우 3% 이내

로 인상할 것을 주문한 것도 이 같은 분위기를 대변해주고 있다. 사립대들은 대학마다 차이가 있지만 비교적 재정 상황이 안정된 곳은 3%선에서, 대다수는 5% 정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남대 김운수 총장은 13일 담화문을 내고 "등록금 동결로 재정상황이 어려워지면 계획한 일을 포기해야 하고, 더 나은 연구환경을 기대한 교수들의 아쉬움을 늘 것"이라며 "그러나 지역 거점 국립대로서 국가적인 어려움과 지역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어 동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공모 교장 첫 퇴출

광주시교육청 중간평가... '학부모 등과 갈등'

광주시교육청이 임기제인 공모제 교장을 중간평가를 통해 직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13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공모 교장 평가관리위원회를 열어 지난 2009년 임용된 모 초교 A교장을 교장직에서 직위해제하고 전보조치를 하기로 했다.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된 광주시 교육청의 교장 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29명 가운데 중간평가에서 직위해제된 사례는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교육청은 A교장이 일부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 등과 갈등을 빚어 '전보조치'를 요구하는 집단 민원과 감사요구를 받은 등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시 교육청은 운영위원 등의 민원

제기에 따라 특별감사를 벌여 일부 방과 후 프로그램 학교운영위원회 미심, 발전기금 부정적 사용,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부적절한 언어사용 등을 이유로 경고(3건)조치했다.

그러나 교육청의 교장평가위원회가 학교운영위원회의 1차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교장에 대해 감사 결과와 토대로 '부적합' 결정을 내린 것은 가혹한 조치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1차 평가 이후 일부 운영위원과 학부모가 집단 민원을 제기, 교장 업무 수행 등을 감안할 때 이들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데도 교직원 별도 면담 등 종합적인 내용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고싸움 체험관 '애물단지'

지난해 문을 연 '고싸움 놀이 영상체험관'의 관람료 수익이 턱없이 적어 남구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13일 광주시 남구에 따르면 지난해 칠석동 고싸움 놀이 영상체험관을 찾은 관람객은 총 9700여명이

며, 이를 통해 거둬들이는 관람료 수익은 1030만원 가량이다. 영상체험관이 있는 '고싸움 놀이 테마파크'는 국비와 시비, 구비 등 총 77억 4000만원 가량이 투입돼 지난해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민속놀이 체험장, 야외공연장 등과 함께 조성됐

오늘 날씨 (Today's Weather) section including a map of South Korea with weather icons for various cities, a table of temperatures for different regions, and a 6-day weather forecast for Gwangju.

강추위 월말까지 간다

하순엔 많은 눈 내리

광주와 전남·북 지역에 엄습한 강추위는 이달 말까지 계속되다가 2월 부터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광주지방기상청과 전주기상대는 "광주·전남·북 1개월 전망"을 통해 "최근 봄에 내린 눈과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으로 이달 하순까지 추운 날씨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달 하순에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

추운 날이 많고, 전남·북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겠다.

2월 상순(1~10일)에는 일시적인 추위가 한 두 차례 찾아오겠으나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0~3도, 7~10mm)과 비슷하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시베리아 고기압이 강하게 발달한 데다 북극의 고온현상에 따라 남하한 한기(寒氣)가 한반도에 동반한 머무를 것으로 보여 이달 내내 춥겠다"고 설명했다.

양승희기자 yang@kwangju.co.kr

년 운영비 2억5천만원 수입은 20분의 1 불과

다. 지난해 영상체험관 관람객 가운데 1인당 관람료가 1000~1500원인 어린이 또는 단체가 5700여명으 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다. 관람료가 2000~2500원인 일반

인 관람객은 1500명이었다. 반면 지난해 영상체험관의 시설 유지·보수에 1억9000만원이 투입된 데다가 직원 4명의 인건비를 포함할 경우 한 해 운영비가 2억5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영상체험관이 가뜰스 나 어려운 남구의 살림살이를 육외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 아지고 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Large advertisement for a winter tour package. It features a tropical beach scene with palm trees and a blue sky. The text promotes a 'Tropical Tour or Summer Cruise' for 799,000 won. It includes a detailed itinerary for 4 days, a list of inclusion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reservations.